

일본 언론과 한일 커뮤니케이션의 껍**

- 주한일본특파원 구로다 가쓰히로를 중심으로 -

박선영*

coreani1026@yahoo.co.kr

Contents

1. 문제제기
2. 연구의 시각 및 방법
3. 구로다 저널리즘의 특징 : 대칭구조의 미학과 논리적 비약의 병존
4. 한국인독자들의 구로다론 : 비판의 양상과 그 특징
5. 구로다 저널리즘의 심층 : 사유구조의 '비연속성'
6. 결론

Abstract

One of the most well-known Japanese journalists in Korea would be <Sankei> correspondent Kuroda Katsuhiko. He has gained himself a reputation of a distinguished 'Korea Watcher'. But despite his fame, his journalism is not that popular in this country and has not been taken seriously as an object of academic research or arguments yet. Why is tha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swer this question through studying the character of his journalism by analyzing his reports(his famous column 'Hello from Seoul'), articles and statements as texts of literature, politics and Japanese way of thinking. The result suggests that frequent use of 'irony' and subtle violation of principles of journalism('accuracy' and 'objectivity') and 'segmental' way of thinking which makes sharp contrast with Korean readers' 'holistic' way of thinking are the main factors which constitute his journalism. Among these three factors, the third seems the most important one to explain the communication gap between Japan and Korea, but for theorizing this thesis it needs more tests.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HK연구교수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7-362-A00019)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Key Words : Japanese journalist, Kuroda Katsuhiko, irony, communication gap, way of thinking(지한파 일본 언론인, 구로다 가쓰히로, 아이러니, 한일 커뮤니케이션의 갭, 사유구조)

1. 문제제기

한일 양국간 상호이해를 위한 지적 노력은 크게 아카데미즘의 지역연구(일본학)와 저널리즘의 국제보도로 대별된다. 이 두 가지의 지적 영위가 겹치는 지점에 일본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성립될진대, 이제까지는 지역연구와 저널리즘 연구 양측 모두 일본언론을 직접적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많지 않았다(오진환, 1993). 일본언론에 대한 연구는 일본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다각도에서 그에 대한 연구가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지한파언론인 연구라는 문맥 아래, 일본의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이하 <산케이>)의 한국특파원 구로다 가쓰히로(黒田勝弘) 기자(이하 구로다)의 언론을 소재로 일본 언론에 관한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함과 동시에 그를 통해 한일커뮤니케이션의 갭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구로다는 일본에서는 최고의 지한파 언론인으로 손꼽히는 인물이자, 한국에 관한 여론 형성에 지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어, 그의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언론은 아직 한국 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일본 극우세력의 대변자적 존재로 치부되어 반감을 사기 일쑤일 뿐,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오지 못했다. 더욱이 그의 언론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은 감정적 반발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일간 커뮤니케이션의 갭을 좁히기 위한 논의로 이어지기 보다는 소모전으로 치달는 느낌조차 든다. 왜 ‘지한파’ 언론인의 언론활동이 정작 한국인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필자는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해 시론적인 논의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우선은, 일본을 대표하는 지한파 언론인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글을 쓰고 있고, 그것이 즐기차게 읽힌다면 어떤 매력이 있기에 그런 것일까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 언론이 외적 매력에 필적하는 내적 논리성도 겸비한 것인지

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와 같은 언론이 생성되는 배경으로서, 일본인 독특한 사유구조라는 것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국인과의 비교를 통해 고찰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한일간 커뮤니케이션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 관련 정보의 일본 측 전문가격인 그의 언론 활동을 관찰하고 비평을 시도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2. 연구의 시각 및 방법

필자가 의도하는 이 작업이 저널리즘 연구 및 일본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라는 맥락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첫째는 구로다 언론에 대한 정치적 가치판단은 일단 유보하고, 그의 글이 갖는 문학적 특징을 가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구로다가 대기자로 통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그의 출중한 문장력을 폄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유수의 한국통으로 이름이 난 것도, 그가 수년간 한국을 다룬 칼럼니스트로 활약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의 분석 대상은 그의 한국 관련 칼럼들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둘째는 그의 출중한 문장력 즉 문학적 재능의 이면에 감추어진 논리 전개방식의 특징을 저널리즘이 견지해야 할 가치들(정확성과 객관성)에 입각하여 비판적으로 독해해보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말한 문학적 분석에서 유보해두었던 이데올로기 비판의 시도이며, 분석의 대상은 문학적 분석의 대상과 똑같은 칼럼들이다.

셋째는 그의 언론이 갖는 일본적 사유구조의 특성을 읽어내는 작업이다. 이는 그의 언론이 한국인에게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를 정치적 이데올로기 이외의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한국인 독자들의 구로다론에서 드러나는 사유구조의 특징과 구로다의 다양한 글들과 발언들 속에 드러나는 사유구조의 특징을 비교고찰해보고자 한다.

3. 구로다 저널리즘의 특징 : 대칭구조의 미학과 논리적 비약의 병존

3.1. 언론인 구로다 가쓰히로

구로다는 1941년 오사카에서 태어나 교토대학 경제학부 졸업 후 교도통신사에 입사한다. 교도통신사 근무 시절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그는 사회부기자 등을 거쳐 1978-79년 연세대학교에 유학하게 되고, 1980-84년에는 교도통신 서울지국장으로 한국 특파원직을 맡게 된다. 1989년부터 <산케이>로 자리를 옮겨 한국특파원 생활을 재개하고, 현재까지 서울지국장 겸 논설위원으로 「서울에서 여보세요」라는 칼럼(매주 토요일 게재) 및 한국 관계 논설을 집필해오고 있다.

그는 자신의 한국특파원 경험을 살려 지금까지 다수의 저서를 출간한 것으로도 유명하며,¹⁾ 그의 기자로서의 활발한 언론활동과 한국전문가로서의 역할은 일본 언론계에서 널리 인정을 받아, 2005년에는 ‘일본기자클럽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²⁾

3.2. 구로다 저널리즘의 매력과 맹점

그가 <산케이>에 싣고 있는 칼럼 「서울에서 여보세요」³⁾는 문학적 흥미로움

-
- 1)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韓国人の発想』(1986), 『ぼくのソウル白書』(1994), 『韓国・反日症候群』(1995), 『韓国人の歴史観』(1999), 『韓国は不思議な隣人』(2005), 『日本離れできない韓国』(2006), 『日韓新考 朝日vs.産経 ソウル発—どうするどうなる朝鮮半島』(2006), 『ソウル発 これが韓国主義』(2009) (이상, 일본에서 출간), 『한국인 당신은 누구인가』(1983), 『한국인은 한국인이다』(1986), 『판문점의 벽은 무너질까』(1990), 『좋은 한국인 나쁜 한국인』(1994), 『구로다 기자가 한국을 먹는다』(2001) 등이 있다.
 - 2) 일본기자클럽은 그가 한국의 정치와 경제, 문화 등 폭넓은 소재를 다룬 「서울에서 여보세요」라는 칼럼을 지난 1989년부터 계속해 쓰는 등 현역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온 점을 수상의 이유로 들었다(<한겨레신문> 2005년 4월 21일자 기사 「산케이신문 구로다 서울지국장에 일본기자클럽상」).
 - 3) 이 칼럼이 구로다의 일본기자클럽상 수상과 직결되었다고 전해진다. <산케이>가 전한 구로다의 수상 이유는 이렇다. “산케이신문의 국제면 칼럼 ‘서울에서 여보세요’(매주 토요일 게재)를 통해 일본 독자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국의 정치, 경제 뿐 아니라, 문화, 취미, 음식, 영화 등 폭넓은 화제를 다뤄 ‘가깝고도 먼, 멀고도 가까운’ 이웃나라 한국의

과 ‘한일간 커뮤니케이션의 갭’이란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구로다 저널리즘의 진수와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매주 토요일마다 실리는 이 칼럼은 읽기 좋을 만큼의 분량⁴⁾에 촌철살인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현재 한국의 이모저모를 날카롭게 도려내어 비평해낸다. 한국에서 날마다 쏟아져나오는 수많은 뉴스들 가운데에서 그가 보여주는 ‘소재’ 선택의 탁월함과 그것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요리’해내는 전문언론인다운 솜씨는 거의 매회 예외없이 맛깔스런 칼럼을 만들어낸다.

도대체 그의 글이 불러일으키는 이 ‘잘 만들어진 듯한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최근 1-2년간 이 칼럼란에 올라온 그의 글들⁵⁾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궁리하다보면, 그의 글들에는 어떤 공통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가 선택하는 뉴스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늘 다양하고 새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들을 다루는 그의 저널리즘적 비평안(批評眼)과 가공법은 늘 비슷한 방식을 지향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이다. 그것을 그의 글이 보이는 ‘구조’로서 파악하고자 할 때, 필자의 생각엔 그 구조가 ‘대칭성(contrast)’에 기반한 것이 아닐까 싶다.

많은 경우, 그의 글에서는 ‘규범과 현상’, ‘명분과 현실’, ‘과거와 현재’, ‘정치와 문화’, ‘한국과 일본’ 처럼 대(對)를 이루는 사상(事象)이 소개되고 그것이 팽팽한 긴장을 이루면서 읽는 재미와 지적 흥분을 자아낸다. 또 한 편의 글 속에 그와 같은 대칭의 구조가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애용하는 이 대칭적 구조는 그 명쾌함의 이면에 논리상의 비약도 보인다. 몇 개의 사례를 살펴보자.

외신칼럼 「서울에서 여보세요」: 「한국인의 한자력」, 2009년 1월 31일

“휴대전화로 메일을 자주 보내오는 한국인 친구가 있다. 한국어니까 당연히 한

전체상에 다가가고 있다.”(<한겨레신문>2005년 4월 22일자 기사 「구로다 기자가 한국모습 제대로 알려 ‘상받았다?’」)

4) 대략 200자 원고지 3-5매 정도/A4 반장 정도이다.

5) msn産経news의 홈페이지(<http://sankei.jp.msn.com/world/korea>)에 올라온 외신칼럼 「서울에서 여보세요」가운데 2007.10.20-2009.2.14사이에 실린 구로다의 칼럼 총43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글이다. 그런데 한국에 30년이나 산 나도 때때로 잘 모르는 단어가 섞여있다. …예를 들면 최근의 메일에서는 ‘비몽사몽’ ‘이왕지사’ ‘애지중지’ ‘기진맥진’ 등을 한글로 써보냈다. … 이 친구는 중년세대로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쓰시던 말이라 외웠다고 한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한자로는 못쓴다. 따라서 말의 유래도 모른다. … 한자를 배제한 현대한국어의 가엾은 현상인데, 그럼에도 한자어는 여전히 인기다. 어딘가 권위가 있어보여 멋지기 때문이다. (방점; 필자)요인(要人)이 하야(下野)하면 꼭 “앞으로는 “백의종군”해서 돕겠다”고 말한다. ‘일개 병졸이 되어’라는 뜻의 ‘백의종군(白衣從軍)’인데, 한자를 보고 “종군간호부(從軍看護婦)”로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

이 칼럼은 한자어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즐겨 쓰면서도 정작 그 한자어를 한자로 쓰지 못하는 한국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대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칼럼은 한국 사회에서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표기하지 않아도 한글 표기만으로도 충분히 그 의미가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다는 점, 즉 한글 표기 체계의 특수성이라는 전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한국인의 경우, 해당 한자어를 쓰지는 못하지만 읽을 수 있는 경우는 많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누락되어 있다. 더욱이 한글세대 즉 젊은 층에서는 한자어 자체를 ‘즐거’ 쓰지도 않는다. 따라서 한자를 배제한 것이 현대한국어를 ‘가엾게’ 만들었다는 지적은 어불성설이라고 논박할 수도 있다. 이는 아마도 일본의 문자 체계가 한자와 가나문자의 병용체제로 되어 있다는 점을 준거점으로 삼아 한국식 표기체계의 특수성을 간과한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 글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백의종군’이라고 쓴 한자어를 보고 ‘종군간호부’로 착각할 것을 염려하는 것은 글 전체의 맥락과 배치된다. 첫째, ‘백의종군’을 한자로 쓰지 못한다는 것과 ‘白衣從軍’을 ‘從軍看護婦’로 읽는다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개연성이 없다. 둘째, 한자어를 한글표기함으로써 그 가 지적하는 터무니없는 오독의 가능성이 ‘배제’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白衣從軍’을 ‘從軍看護婦’로 오독하려면 일본처럼 한자표기를 상용화하거나 상당한 한자 실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외신칼럼 「서울에서 여보세요」: “독도”야 울지마라?, 2009년 1월 10일

“한일 영토분쟁에 휩싸인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문제를 그린 영화 ‘미안하다

독도야가 개봉됐다 해서 보려고 맘먹고 있었더니 벌써 끝났다고 한다. 지난 31일에 개봉되었는데 관객의 발길이 뜸해, 빠른 곳은 일요일인 지난 4일에 막을 내렸고, 거의 대부분의 영화관이 1주 정도로 끝내버린 것이다. …그 점을 둘러싸고 한국사회는 언제나 ‘일본은 나빠!’ ‘독도를 지키자!’라며 남녀노소, 여야, 좌우…은 나라가 일치단결해서 흥분한다. 하지만 자기돈 내고 보는 영화가 되면, 아무리 ‘독도애국’이라지만 재미가 없으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것이다.(방점:필자) 한국 사회에도 그 정도의 성숙도(?)는 있다.”

이 칼럼은 ‘애국’이라는 명분과 그 ‘애국’이 실생활에서의 관심과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대칭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낙차를 꼬집고 있다. 그러나 이 칼럼은 ‘미안하다 독도야’라는 영화의 작품성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독도에 대한 관심이 그대로 독도관련 영화의 관람 행위로 직결되리라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의 비약을 드러낸다. 독도사랑이라는 애국적 행위는 영화관람 이외에도 술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다. 더욱이 독도를 다룬 영화의 작품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영화를 등한시하는 한국 사회의 반응이 오히려 문화적 성숙도와 독도사랑의 반증일 수도 있지 않은가.

외신칼럼 「서울에서 여보세요」: ‘다케시마/독도 상품’, 2008년 7월 19일

“한국은 또 ‘독도’ 때문에 난리다. 한일이 영유권을 다투은 문제이니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일본이 자기 주장을 하면 비난의 대합창을 한다… 그러나 정작 경상북도나 울릉도에 가보면 의외로 ‘독도관련상품’이 없다. (방점:필자) ‘호텔 독도’라든지 ‘독도 요리’ ‘독도 사탕’ ‘독도 오징어’ 등도 괜찮을 텐데. 한일 공동으로 다케시마/독도 상품 개발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 칼럼 역시 애국심과 그 실천 사이의 낙차를 꼬집고 있다. 그러나 독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곧 관련문화상품에 대한 관심 내지는 그 개발, 판촉, 소비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직선적 추론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러한 발상도 고도의 상품경제체제와 소비문화를 구가하는 일본 사회에서 통용되는 특수한 현상을 한국 사회에 투영시키고 그것을 일반화하려는 데서 생겨난 논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외신칼럼 「서울에서 여보세요」: ‘노벨 평화상을 기념하는 요상한 모임’, 2007년 12월 22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7주년을 기념한 행사가 있었다. 그런데 김대중씨 자신도 출석하여 성황을 이룬 그 행사의 캐치프레이즈가 ‘미안마에 자유를, 수지에게 자유를’이었다. …세계적인 인권활동가였던 김대중씨가 왜 북한 민중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문제삼지 않는지 의문이다.(방점;필자) 바로 결의 북한 동포의 비참함은 제껴두고서 왜 미안마인가. …김대중씨는 대통령시절, 한국에서 복역중이던 일본인 납치범 북한공작원을 ‘정치범’ 자격으로 북한에 송환했다. 그런 김씨에게 일본의 모 대학은 얼마전 명예학위를 수여했다. 이해가 안된다.”

이 칼럼은 인권운동가이기도 한 김대중 전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정작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칼럼에도 논리의 허점이 보인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그 주된 이유가 대통령으로서의 재임기간중에 대북 유화정책을 통해 남북의 화해를 도모하고 그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했던 정치적 노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지 인권활동이 주된 이유가 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의 노벨 평화상 수상7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주된 테마로 다루었다면 그것은 대북유화정책을 통해 남북의 화해를 도모하고자 했던 그의 정치적 노선과 오히려 배치되는 것이 아닐까. 물론 그의 경력 속에서 인권활동가로서의 면모를 분리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미안마의 민주주의나 인권문제를 기념행사의 의제로 다룬 것은 교육지책과도 같은 의미는 있을지언정 결코 부적절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칼럼에서 쓰고 있는 표현처럼 ‘세계적인 인권활동가’의 면모를 나타내보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외신칼럼 「서울에서 여보세요」: ‘테러리스트의 옥사’, 2008년 6월 7일

“사이클론으로 대피해를 입은 미안마로부터 얼마전 서울에 작은 뉴스가 전해져 왔다. 1983년 10월, 미안마의 수도 랑군에서 일어난 북한 무장공작원에 의한 전두환 대통령 암살미수사건의 범인이 옥사했다는 소식이다. 한국에서는 일부 매스컴에서 아주 작은 기사가 나왔을 뿐, 이상하게도 당시를 돌아보는 움직임은 전혀 없

었다. ...그렇게도 역사와 과거를 좋아하는 한국인데, 국가적 피해를 입은 그 대사건을 왜 모른척 하는 건가. 또 북한에 대해 '사죄와 반성'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방점;필자) 이래가지고서는 북한이 알아봐도 별 수 없지 않나?"

사건 당시의 국명인 '버마' 량군 테러사건으로 더 친숙한, 과거 북한이 일으킨 테러사건을 잊어버린 듯이 보이는 한국 사회의 '역사인식'을 문제삼은 칼럼이다. 일본이 자행한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 잊지 않겠다'는 자세를 관철하는 한국인이 북한의 과거 악행에는 '관대해' 보인다는 점을 대조시키면서 한국인의 역사인식에 보이는 비일관성을 꼬집고 있다. '사죄와 반성'이라는 문구가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칼럼에도 논리상의 비약이 엿보인다. 첫째, 암살미수사건의 범인이 옥사했다는 소식을 매스컴에서 작게 다루었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그 테러사건을 잊었거나 모른척하는 것이라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일까? 테러범의 사망관련 뉴스의 뉴스가치는 동일 시점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 사고와 경합관계에 있다. 설사 매스컴의 작위적인 선택으로 인해 관련 뉴스가 작게 취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사회의 역사인식을 물을 수 있는 판단재료로 충분한 것일까? 또 북한이 자행한 테러 사건에 대해서도 과거 일제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역사와 과거를 좋아하는' 국민의 행태로서 모순이란 지적도 수긍하기 어렵다. 이는 36년간의 이민족 지배와 한 번의 테러사건이라는 성질이 다른 두 사건을 동렬에 두는 오류이며, 그를 통해 전자의 문제성을 후자 차원으로 그 의미를 축소시킬 위험조차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국에 '사죄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해서 상대국이 '알 잡아보지 않는다'는 추론도 비약이다. 국가 간 교섭의 결과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알 잡아보는' 행위로 규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의견의 일치를 보기 힘든 지점이다. 실제로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사죄와 반성'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을 더 이상 '알 잡아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 글이 풍기는 뉘앙스는 그 반대가 진실에 가까움을 암시하고 있지 않은가.

외신칼럼 「서울에서 여보세요」: ‘올해의 소 내년의 소’, 2008년 12월 27일

“올해 한국 사회를 뒤흔든 미국산 소고기 반대 데모는 뭐였던가.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한국은 지금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수입국이다.(방점;필자) 소에 휘둘린 올해였는데, 알못게도 내년은 또 소의 해다. 내년의 한국 소는 어떤 소일까?”

이 칼럼은 2008년 한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소고기 정국과 그 이후의 한국의 수입산 소고기 시장의 상황 사이의 낙차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칼럼은 결과만을 문제삼음으로써 소고기 수입 반대 데모의 의미를 간과하고 본말전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수입국’이기에 그만큼 오랜 시간 이 문제가 국민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기 때문에 반대 데모를 했던 시민들과 소고기 수입을 강행하고자 했던 정부 사이의 타협점이 찾아진 것이라 볼 수도 있는 사안인데도 이 글은 사건의 ‘시간성’(연속성 내지는 맥락)을 누락시킨 채 과거와 현재의 대조적인 상황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외신칼럼 「서울에서 여보세요」: ‘망치 폭력 국회’, 2009년 1월 17일

“야당진영에는 좌익학생운동출신 의원과 비서관, 보좌관이 많아 이런 류의 저항 투쟁에는 익숙한 법. 태권도의 나라답게 발차기 날려차기는 특기라지만, 연말 폭력국회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대형 망치의 등장이었다. (방점;필자)야당의원이 대형 망치를 휘두르며 위원회실의 문을 두드려부수는 장면은, 때도 마침 12월이라, 赤穂浪士大高源五의吉良邸습격을 떠올리게 했다…한편 설전도 재미있다. 예컨대 여당의 법안심의강행에 대해 야당은 ‘자기들이 다 짜놓고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만주사변 때 일본군과 똑같다!’라든가 ‘국민을 정복(설득?;필자)할테니 야당은 비켜라니, 명나라 정복하러 조선반도에 쳐들어온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닌가!’라고 비난한다…역사 좋아하는 나라다보니 역사적 교사(故事)를 모르면 뭘말인지 따라잡을 수가 없다.(방점;필자)”

국회는 정치적 사안을 ‘비폭력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안해낸 민주적 장치임에도 2008년말-2009년초 한국의 국회에서는 폭력이 난무했다. 이 칼럼

은 의회민주주의라는 한국 정치의 이상과 ‘폭력국회’라는 현실 사이의 낙차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문화와 ‘폭력국회’라는 이상 사태의 발생 사이에는 어떠한 논리적 필연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태권도’와 국회의원의 폭력 행사와의 관계를 한국 특유의 문화인양 연결지우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또 한국 국회의원의 일본 관련 고사(故事) 인용에 고개를 가우뚱거리게 된다고 말하는 필자가, 자신은 자국 일본의 무사 문화에서 나온 문학작품 ‘츄신구라(忠臣蔵)’의 한 장면을 한국 국회의 폭력사태와 견주고 있다는 것도 내적 모순이다. 정작 이 칼럼이야말로 한국 국회의 폭력사태를 한국의 역사나 민족성과 연결지워보려는 발상에서 씌어진 것이 아닐까.

이상 몇 편의 칼럼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구로다 저널리즘의 ‘한국 소개’는 문학적 논의의 대상이자 정치적 논의의 대상으로서 충분히 ‘문제적인’ 작품들임을 알 수 있다. 우선 그 언론의 문학적 특질을 정리해보자면, 위에 예시한 글들이 보여주는 대칭성은 바로 ‘아이러니’라는 문학적 기법에 기반해있다. 이 ‘아이러니’ 기법이 한국인 독자에게 자아내는 따금한 느낌은 ‘아이러니’에 해당하는 일본어 ‘히니쿠(皮肉;비꼬기)’에서 더 잘 포착된다. 즉 ‘남의 약점을 은근히 돌려서 꼬집어내는 것’, 혹은 ‘일이 예상이나 기대와 어긋난 결과가 되는 것⁶⁾이 그것이다. 칼럼의 소재가 되는 뉴스는 거의 대부분이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한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거기에 ‘히니쿠’라는 기법이 소재 자체의 부정성(negativity)을 극대화시킨다. 바로 이 점이 그의 글을 읽는 한국인 독자에게 ‘신랄(辛辣)’한 뒷맛을 안겨주는 표면적인 이유일 것이다.

‘아이러니’는 원래 ‘위장(僞裝)’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철학 용어로는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문답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토론의 상대를 식자(識者)라 전제하고 자신은 무지(無知)한 척 위장한 채,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이러니’라 할 때⁷⁾, 「서울에서 여보세요」라는 그의 칼럼은 한국인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한국의 자화상을 날카롭게 그려내보인다는 점에서 철학용어로서의 아이러니와도 상당부분 부합하는 면이 있다. 즉 구로다

6) 『広辞苑』第五版(岩波書店) ‘히니쿠’④⑤

7) 『広辞苑』第五版(岩波書店) ‘아이러니’②

의 칼럼들은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에게는 ‘자명한’ 사상(事象)들, ‘자연스러운’ 듯이 보이는 것들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작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즉 ‘자명성의 폭력’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롤랑 바르트가 『현대의 신화』⁸⁾에서 행한 작업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화려한 수사(修辭)의 이면을 들추어보면, 일견 한없이 명쾌해 보이는 그의 언론에도 적지않은 논리의 비약이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즉 저널리즘이 지켜야할 정확성과 객관성이라는 기본 원칙이 그의 글에서는 교묘히 깨뜨려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고, 그것이 외견상의 명쾌함을 만들어내고 있는 듯이 보인다. 글 전체의 논리성을 고려하면 할수록 문체의 간결함과 구조의 대칭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고찰을 통해 구로다 언론이 갖는 매력과 맹점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그것이 일본인 독자들에게는 ‘읽는 재미’ 혹은 ‘비판의 쾌감’으로 다가가는 반면, 한국인 관찰자들에게는 ‘반감’ 혹은 ‘억울함’을 낳는 표면적 이유가 아닐까라는 점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구로다 저널리즘이 한국에서 인기가 없는 이유는 이것으로 모두 설명이 되는 것일까. 필자는 구로다 저널리즘에 대한 객관적 고찰이라는 본 논문의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구로다의 언론을 성립시키는 ‘언명(言明) 이전의 논리’ 내지는 일본적인 사유구조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구로다 저널리즘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양식을 살펴보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한국인의 사유구조의 특징을 추출한 다음, 구로다의 그것과 비교해보는 순서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4. 한국인독자들의 구로다론 : 비판의 양상과 그 특징

구로다 저널리즘의 긴 역사와 명성에 걸맞게, 한일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 관심있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그의 언론이 주목의 대상이 되어왔다. 대체로 그

8) Roland Barthes(1970), *Mythologies*. Paris : Editions du Seuil, c1957(롤랑 바르트,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역(1997) 『현대의 신화』, 東文選)

의 언론이 한국인의 관심을 끄는 방식은 단발적인 관심이 단기집중적으로 일어나는 형태를 그린다. 예컨대 그가 <산케이>에 보낸 보도기사나 칼럼이 다시 한국 언론에 소개되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라든지, 한일간 현안에 관해 그때 그때 그가 행한 한국 매스컴에서의 발언이 세간의 화제가 된다거나 하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그의 언론 전반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 양상을 살펴보고, 그 기저를 이루는 사유구조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4.1. 언론인 구로다에 대한 총평

구로다는 일본에서의 인기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스테레오타입적 평가를 받고 있는 듯하다. 그에 대한 한국측 지인이나 시민들의 인상 혹은 평가를 조사해보면 대략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한일 양국으로 범위를 넓힌다면 아마도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서울 주재 최장수 일본인 특파원, 지한파의 거물 기자”(『월간조선』 오효진 기자)

“일본의 보수 논객”(〈동아일보〉 김승훈 기자)

“1989년부터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으로 재직중인 극우 언론인으로,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거나 한국의 민족주의를 비하하는 글을 <산케이신문> 등 다수의 언론에 기고해 논란을 일으킨 주인공”(〈한국일보〉 김재범 기자)

“극우 발언으로 많은 물의를 빚은 극우언론인”(필자명 ‘해우소’, 「구로다 가쓰히로의 망언에 침묵하는 우리 언론」 maggot.prhouse.net, 2008년 5월 1일)

“일본 신문의 서울 특파원으로서 한국을 바라보는 뒤틀리고 왜곡된 부정적 시각을 일본과 한국에 여기저기 내뱉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블로그 명 ‘들풀’, 「구로다 가쓰히로는 누구인가」deulpul.egloos.com/936895, 2005년 3월 17일)

“일본 보수 우익의 목소리를 전혀 거리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내뱉는다”(上同)

“구로다 기자에게 상준 일본기자클럽의 ‘황당사유’ - “이웃나라 한국의 모습 제대로 보여줬다””(김영인 이승영 기자, <한겨레신문> 「구로다 기자가 한국모습 제대로 알려 ‘상받았다’?」, 2005년 4월 22일자)

이 총평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로다의 언론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는 거의가 부정적인데 그 이유는 앞에서 유추해본 바와 같이 정치적 반감 내지는 역사

적 반감 때문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 평가의 이유가 그것뿐인 것일까. 아래에서는 구로다를 비판하는 글들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시각, 논의방식의 특징 즉 사유구조의 특징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하겠다.

4.2. 구로다 비판의 심층 - 사유구조의 '연속성'

■ 개인과 집단의 연속/과거와 현재의 연속

“그는 일본의 대표적 보수 신문, 일부 평자는 극우 보수 신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산케이>의 한국 파견 직원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방점; 필자)…일본의 보수 우익이 한국의 그것과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에서 점하는 위치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바로 전쟁과 팽창주의, 아시아 대부분을 노예로 부리던 일본 제국 시대의 영광을 회귀하는 과거지향성이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보수는 status quo를 지키는 보수(保守)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자는 데 가깝다. 그리고 <산케이>는 이러한 취향의 독자들에게 부응하며 이들을 잘 엮어내고 있는 매체다.” (방점; 필자)(블로그명 ‘들풀’, 「구로다 가쓰히로는 누구인가」deulpul.egloos.com/936895, 2005년 3월 17일)

이 글의 앞부분에서는 <산케이>라는 회사와 구로다라는 개인 혹은 <산케이>라는 신문사와 구로다라는 기자를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사회의 각 부문에서 집단주의가 힘을 발하는 일본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다. 또 실제로 단순보도기사의 경우, 기사를 집필한 기자의 서명을 굳이 기재하지 않으려하는 일본 신문의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자 개인과 그가 소속하는 언론사를 ‘연속적’으로 파악하려는 이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성립가능하다. 그러나 동시에 구로다가 매번 다양한 기사를 쓸 때마다 혹은 타매체에서 발언할 때마다 <산케이>라는 회사를 대변한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윗 글은 구로다가 몸담고 있는 <산케이>가 보수 우익지라는 점을 지적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일본의 보수 우익이 과거로의 회귀를 회귀하는 세력이라 규정하려 한다. 따라서 <산케이>역시 제국주의적 과거지향성을 가진 신문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판단 아래에서는 <산케이>에 소속된 구로다 역시 과거와 현재가 중첩된 인물로 보여질 것이다. 이는 다음의 인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을 강제로 범한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 의사의 총격을 받았으며, 또 비슷한 한 때는 윤봉길 의사의 폭탄 세례를 받았다. …구로다는 내가 보기에 이토오나 그 시대의 일제 침략배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방점; 필자) 아니, 이토오보다 더 악랄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하지 않는가”(블로그명 ‘들풀’, 「구로다 가쓰히로는 누구인가」deulpul.egloos.com/936895, 2005년 3월 17일)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산케이>의 논조가 전후 이래 지금까지 시종일관 단일 노선을 따르고 있는지, 또 보수우익이라 하더라도 시기나 사안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없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⁹⁾ 또한 일본의 보수 우익이 모두 제국주의적 과거지향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단일한 세력이라 규정될 수 있는가라는 보다 복잡한 문제도 있다. <산케이>가 일본의 향후 미래상을 ‘보통국가’에서 찾는 소위 자유주의사관파(派)의 일각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과거의 제국주의와의 관련성을 논의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보통국가론’자체가 논의의 중점을 ‘전후 일본’의 개조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산케이>의 정견에 구로다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다.¹⁰⁾

■ ‘나/우리’(한국)와 ‘남/타자’(일본)의 연속

한국인들의 구로다 비판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정서적인 반응의 하나는, 소위

9) 논자에 따라서는 <산케이>가 광고 카피로 선택한 ‘群れない新聞(무리를 짓지 않는 신문)’ ‘逃がない新聞(도망가지 않는 신문)’ ‘モノをいう新聞(할말을 하는 신문)’이라는 문구에서 보수 우익노선에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10) <산케이>는 일본의 언론계에서는 소위 ‘동경재판사관’ 혹은 ‘자학사관’의 청산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사관’파(派)의 중요한 일각을 이루고 있다. 구로다도 ‘자유주의사관’운동에 대해, “일본인이 전후적(戰後的)인 최면상태에서 깨어나 ‘보통국가’가 되려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며 “좋은 나쁜든 간에 앞으로 이 흐름은 확실히 일본사회에 퍼져갈 것”이라고 하였다(구로다, 1999). 그러나 문제는 ‘보통’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전전 체제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점일 것이나, 이는 이념의 스펙트럼만큼이나 복잡한 논의이며, 구로다 자신 전전 체제와의 관련성을 언명하지는 않고 있다.

‘꽤 씩하다’는 감정의 토로이다. 일반적인 일본인의 경우와 같이, 한국을 겪어 보지 못하고 한국을 잘 몰라서 한국을 오해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구로다처럼 한국 체험이 길고 직업상 누구보다도 한국을 더 잘 알고 있는 일본인이 한국에 비우호적인 언론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일종의 ‘배신’ 행위와도 같다고 여기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다음의 인용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흔히 구로다는 한국에서 지한파(知韓派)로 알려져 있고 언론에서도 항상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당장 고쳐야 할 말이다. 누가 지한파란 말인가. 그는 지한파가 아니라 한국을 혐오하는 전형적인 혐한파(嫌韓派)다. 대체 한국을 잘 아는 작자가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로 혜택을 받았다”라거나 “독도는 누가 뭐래도 일본땅”이라거나 “친일 청산 주장은 친북 좌파”라거나 “왜 한국은 일왕을 천황이라고 부르지 않는가”하는 등의 헛소리를 공개적으로 뽀뽀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방점; 필자)”(블로그명 ‘들풀’, 「구로다 가쓰히로는 누구인가」deulpul.egloos.com/936895, 2005년 3월 17일)

이와 같은 비판은, 한국이라는 ‘나’ 혹은 ‘우리’와 일본이라는 ‘남’ 혹은 ‘타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연속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윗 글에 깔린 논리 대로라면, ‘한국을 잘 아는 작자’라는 것은 곧 한국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자 혹은 대다수 한국인의 상식과 정서에 전적인 공감만을 표하는 자를 의미하는 듯이 보인다. 한국인의 ‘우리’의식이 갖는 특징의 하나가 ‘우리’라는 의식의 범위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면(최재석, 1994), 윗 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우리’의식의 확장도 그 한 예로 이해할 수 있다. 구로다의 경우, 한국 체재의 긴 경험과 한국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매개가 되어 더 이상 ‘남’이 아닌 존재 내지는 ‘우리’의 일부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확장되는 ‘우리’의식 속에 타자가 쉽게 포섭되지 않을 때, 확장의 시도 자체가 오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글은 이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일본인은 산케이신문 지국장인 구로

다 가쓰히로씨와 전남대학교의 미즈노 슌페이 교수란다. (방점;필자)…한마디로 한국인을 비하하는 논조의 기사가 많다는 것이었다. … 때문에 구로다 특파원의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부아가 치민다고 말했다. …그제서야 나는 한국인의 분노의 실체를 알았다. 일종의 배반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방점;필자) 가령 구로다 특파원에게는 무조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길 원하고, 미즈노 교수에게는 무조건 ‘한국이 좋아요’라고 말해주길 바랬는데 그게 어긋난 것이다.”(유재순의 일본리포트, 「구로다 특파원과 미즈노 교수를 욕하지 마라」; 필명 ‘나카마’, japan.web-bi.net/home, 2005년 1월 31일에서 재인용)

이 글은 확장된 ‘우리’의식 속에서 이질적 존재가 ‘우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반발이 구로다와 미즈노 교수¹¹⁾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배경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와 ‘남’을 구분하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파악하려는 이와 같은 사유구조상의 특징은 한국인 특유의 감정적 반응을 격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는 듯하다.¹²⁾

■ 정치와 타부문의 연속/정치와 도덕의 연속/사실과 의견(감정)의 비분리

다음의 글은 구로다가 <산케이>에 보낸 서울발 기사 「한국 매스컴 다케시마 문제 연일 보도, 대일강경론 선동」이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한국측 언론인이 실망과 분노를 담아 써내려간 글이다. 구로다의 기사 내용의 요지는 ‘한국에서는 다케시마 문제가 매스컴의 반일 캠페인으로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아래의 글은 그 기사에 대한 반론 성격을 띠는 글이다. 이 글에서 주목할 부분은, 독도분쟁이라는 정치적 사안과 다른 부문들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입장, 특히 정치와 도덕을 연속적인 문제로 보려하고 그와 같은 시각을 조금도 의심해보려 하지 않는 입장이다.

11) 미즈노 슌페이(水野俊平, 1968년생):전남대학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동대학에서 객원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한국방송에도 출연하여 인기를 모으며 ‘친한파’로 인지되었으나, 2004년 일본 보수우익계 잡지에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투고한 것이 밝혀져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는 홋카이상과대학 교수로 재직중.

12) 이 점에 관해서는 후술하는 ‘인간과 일의 비분리’라는 항목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독도 분쟁 직전만 해도 한국인의 많은 수가 일본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내가 평생 기자로서 목격해온 현상이었습니다. (방점; 필자) 그러나 지금 한국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일본이 던진 새로운 질문 앞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국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방점; 필자) 불행히도 지금 독도 문제는 다수의 한국인으로 하여금 일본을 향한 마음을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이신우 논설위원, 「오피니언 ; 구로다 기자에게」 <문화일보>, 2005년 3월 25일)

위와 같은 반응은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서 당연한 논리이고 자연스러운 사유구조로 이해될 터이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논리가 ‘보편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있다. 일본인의 대다수는 독도문제에 큰 관심이 없고, 독도 문제가 분쟁 상대국(즉 한국)과의 관계를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한국인과는 달리 연속성에 기반하지 않는 그들의 사유구조 아래에서는, 예컨대 ‘독도는 독도이고 온사마는 온사마’라는 식의 구분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특히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이라면 독도분쟁이라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한 일간의 비정치적 부문에서의 교류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유감스런 사태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위의 논자처럼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의 이러한 비연속적인 사유구조 자체가 낯설다. 또 그에 바탕하여 전개되는 사실(fact)에 대한 지적 조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의 인용이 그 좋은 예이다.

“한국민이 독도문제에 흥분해서 이전에는 독도에 대해 일본국민 70%가 몰랐으나 최근에는 70%가 알게 되었다며 한국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냐를 논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공갈 및 협박 양상까지도 띄고 있는 것이다.”(필자명 ‘홀러간유행가’, 「구로다씨 당신은 진정 기자입니까?」, world.hani.co.kr/board, 2005년 4월 23일)

이는 구로다가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인의 인지도 상승의 경위를 설명한 데¹³⁾

13) 2005년 4월 2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구로다가 행한 주제 발표 ‘독도 문제를 보는 한일 언론의 보도태도’. 이 발표에서 그는 “시마네현 지방의회가 ‘다케시마

대해 한국인 독자가 보이는 감정적인 반응의 양상이다. 구체적인 수치와 그것이 의미하는 이해득실이라는 사실관계에 바탕한 추론의 시도를 ‘공갈’ 혹은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과 ‘의견’/‘감정’의 비분리라는 연속적 사유구조를 보여준다.

■ 저널리즘(의견)과 아카데미즘(진리)의 비분리

부산의 국제신문사는 구로다를 객원 논설위원으로 맞아들여 2001년 1월에서 4월에 걸쳐 몇차례 그의 글을 지면에 소개한 적이 있다. 당시 구로다가 <국제신문>에 기고한 글들은 앞서 살펴본 그의 칼럼 「서울에서 여보세요」의 글들과 유사한 터치의 칼럼들이다. 그러나 그의 글은 부산지역의 민언련과 국회의원 등의 강한 반발을 샀다. 우선 구로다가 <국제신문>에 기고한 글들 가운데 문제가 된 글의 관련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영도다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한국언론에 기사가 나왔다. 어느 잡지의 특집기사에는 “일본의 학정(虐政)과 전쟁의 비극을 말없이 지켜본 영도다리. 전설 같은 옛 이야기만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쓰여있었다. 영도다리가 6.25전쟁의 피난민을 통해 ‘전쟁의 비극’을 지켜본 것은 틀림없지만, 일제시대의 역사에 대해 단순히 ‘학정’만 적은 것은 역사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 (방점; 필자) 일제시대는 ‘학정’뿐만 아니라 ‘부산의 근대화’도 있었을 것이다. 영도다리는 근대적인 항구도시 부산의 상징(심벌)이 아니었던가.”(구로다 가쓰히로, 「시론 : 부산, 대담한 발상 전환을」<국제신문> 2001년 1월 4일자)

우선, 위 글의 논리성을 검토해보면 눈에 띄는 문제가 있다. “일본의 학정(虐政)과 전쟁의 비극을 말없이 지켜본 영도다리”라는 글에 대해 구로다는 이 글이 “일제시대의 역사에 대해 단순히 ‘학정’만 적은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

의 날’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일본에서 전국적 관심사가 아니었고 언론도 무관심했으나, 한국에서 요란하게 반일 움직임이 일고, 한국 정부의 대일강경 외교노선 발표와 대통령의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발표문 등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으며, “일본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그전에는 독도에 대해 70%가 몰랐으나, 최근에는 70%가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것이 한국 입장에서 볼 때 과연 플러스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조선일보> 2005년 4월 22일자 기사 「구로다 지국장 “한일 갈등은 한국언론 보도 때문”」).

러나 ‘일본의 학정을 지켜보았다’고 적은 것이 어떻게 ‘학정만을 적은 것’이 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다. 이는 정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지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들이 구로다가 보인 이러한 오류에 대해 그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고 똑같이 부정확하고 비객관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다음 글은 위에서 본 구로다의 칼럼에 대해 한국인이 보인 반응이다.

“국제신문사는 2001년 초 조갑제의 추천을 받아 험한 논객으로 유명한 구로다가쓰히로를 논설위원으로 영입한 적이 있는데, 구로다는 당해 3월의 칼럼에서 “영도 다리는 6.25 전쟁의 상징이지 일제시대 착취의 상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방점;필자) 이 필화사건 이후 민언련과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국제신문은 구로다를 퇴출시키고, 산케이 신문은 서울지국을 폐쇄하라”라는 성명을 냈다.” (위키백과-국제신문)

구로다는 “단순히 ‘학정’만 적은 것은 역사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라고 했지만, ““영도 다리는 6.25 전쟁의 상징이지 일제시대 착취의 상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또 구로다의 글을 실은 <국제신문>에 대해 객원 논설위원을 퇴출시키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법일까. 언론민주화운동단체나 국회의원은 모두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사회의 원칙을 활동의 근거로 삼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 외국인 언론인의 진퇴를 중용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 아닐까. 영도다리에 대한 구로다의 역사인식에 문제를 느낀다면 구로다의 논리 전개와 문제성을 지적하고 <국제신문> 지면을 빌어 반론을 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더욱이 국회의원이 구로다를 파견한 <산케이>에 대해 서울지국을 폐쇄하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학계에서조차도 ‘학설’의 형태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역사 인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 언론인이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그 언론을 봉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면, 이는 ‘의견’으로서의 저널리즘과 ‘진리’로서의 학문을 구분해서 보려하지 않는 사유구조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

“구로다 기자는 ‘일제의 학정’을 ‘일제하의 근대화’라고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글이) 발표된 3일 뒤 구로다 가쓰히로씨는 <국제신문> 칼럼 필진으로 선임되었다. 이미 본 신문모니터반에서는 <산케이신문> 보도를 언론사들이 무분별하게 인용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바 있지만 극우인사가 시론 필자로 등장했다는 것은 정말 일본 극우주의자들도 웃을 일이다. 구로다 가쓰히로씨를 시론필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국제신문>이 말하는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시론 필진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다.”(방정:필자)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왜 「구로다 가쓰히로」인가」, siminnet.or.kr, 2001년 4월 26일)

<국제신문>이 자사의 역사인식과 다른 인식을 가진 구로다를 외부 필진으로 영입하여 그의 글을 소개한다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언론의 다양성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려는 노력이다. 실제로 많은 신문사들이 자사의 편집방침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기(附記)하면서까지 외부 필진의 글을 소개하는 것도 지면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것은 또한 독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언론사의 겸허한 자세로 평가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위 글의 주장에 깔린 논리적 전제는, ‘진리는 하나이며 진리로 통하는 길도 하나일 뿐’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와 같이 의견과 진리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유구조의 연속성은 다음과 같은 견해로 이어진다.

(독도관련 구로다 발언과 관련) “언론인에게 보편적 양심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것인가? 왜 진실을 왜곡하는 자국인들에 대해 따끔한 회초리를 들지 못하는가?”(blog.daum.net/icebluesky/1725239)

‘진실’은 자명하며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보편적 양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보편적 양심’이 결여된 자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아니되며, ‘운동’을 통해 그를 변화시키거나 그를 둘러싼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조선일보>의 태도도 용서하기 힘들지만 <산케이신문>의 한국 특파원으로 있는 구로다 기자의 역사의식을 이대로 방치해서도 안된다는 생각

이다. (방점:필자) …이는 결코 개인의 가치관의 차이도 아니며, 신문의 다양성이라는 전천후 갑옷의 보호막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역사를 농락하는 <산케이신문>의 보도 태도에 우리는 그저 침묵해선 안된다. 대체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한국 특파원으로 나가 한국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아무튼 <산케이>는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방해가 되는 집단임에 틀림없다. 다시 한번 고국의 동포들은 <산케이>의 서울지국 폐쇄운동을 펼쳐줄 것을 부탁한다. (방점:필자) (안호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의 구로다 기자를 아는가」 『인물과 사상』 2001년 3월호, 94쪽)

“최근 들어 <산케이신문>과 구로다 지국장의 망언이 계속되면서, <경향신문> 내부에서는 차제에 <산케이>와의 제휴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영환 기자, 「경향신문-MBC, 이젠 <산케이>와 결별해야 -전두환 정권 때 제휴 체결, “구로다에게 장소제공, 말도 안돼”」 <프레시안> 2005년 4월 11일)

현재는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경향신문>이 과거에 <산케이>와 맺은 제휴관계를 해소해야한다는 의견도 분출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구로다의 ‘망언’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성향의 차이는 있지만 정작 같은 언론계에서 한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나 다른 언론인의 언론을 포용하기 어려운 것도 의견과 진리를 연속적인 것으로 바라보려는 사유구조 때문이 아닐까.

■일과 인간의 비분리

그리하여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신들이 ‘진실’이라 여기는 것에 동조하지 않는 자는 ‘보편적 양심’이 결여된 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한국인 관찰자들이 구로다를 묘사하는 방식은 인신공격의 양상을 띠기도 한다. 즉 한 언론인에 대한 비판과 한 사람의 자연인에 대한 인격적인 비난을 종종 혼동한 듯이 보이는 거친 언사(言辭)도 불사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에 오래 머물며 몽기적대는 외국 언론인”(블로그명 ‘들풀’, 「구로다 가쓰히로는 누구인가」deulpul.egloos.com/936895, 2005년 3월 17일)

“반기문 외교부장관의 기자회견장에서 장관을 붙잡고 늘어지며 말싸움을 하려

달려드는가 하면”¹⁴⁾(上同)

“그 너부적테데한 얼굴을 직접 상면한 적이 있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上同)

“기회가 되는 대로 방송에 낯짝을 내밀어”(上同)

“극우 구로다의 ‘간죽’”(김동현 기자, <뷰스앤뉴스>, 2009년 1월 29일)

“이 양반은 한국에서 오래 생활했다는 핑계(?)를 대고 지한파인 척하면서도 실상은 아주 한국을 얹잡아 보는 돼먹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neo.urimodu.com/bbs)

“구로다...계속 구라풀거면 구라다로 이름을 바꿔보시오.”(필자명 ‘홀러간유행가’, 「구로다씨 당신은 진정 기자입니까?」 world.hani.co.kr/board, 2005년 4월 23일)

이와 같은 언사는 언론인으로서 구로다가 행하는 ‘일’과 자연인으로서 구로다의 ‘개성’ 혹은 ‘존재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려는 사유구조의 연속성을 그 기저에 깔고 있다.

5. 구로다 저널리즘의 심층 : 사유구조의 ‘비연속성’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인 관찰자들의 구로다론에서 엿보이는 사유구조의 연속성이라는 특징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부터는 구로다의 사유구조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인들의 연속적 사유구조와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과거와 현재의 분리

구로다가 정치 혹은 역사와 관련하여 쓴 글이나 행한 발언 가운데 한국인 관찰자들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과거’와 ‘현재’를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14) “구로다 지국장장은 지난달 4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과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외교인지 또는 정상적인 국가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산케이신문 구로다 서울지국장에게 일본기자클럽상」<한겨레신문> 2005년 4월 21일자 기사)

경향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의 글과 발언으로부터 유추되는 한에 있어서, 구로다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현재가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시간적 인과관계의 총체라는 인식은 희박하다. 오히려 역사는 분절된 개별적 사건의 나열 혹은 병치라고 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일본의 속담에는 ‘水に流す(물에 흘러보낸다)’라고 하여, ‘과거의 일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모두 없었던 것처럼 한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과거와 현재를 분리해서 보려는 경향이 일본인들에게 실재한다는 사실의 근거로서, 일본인 일반의 역사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말이다. 구로다의 역사인식방법이 일본인의 일반적 경향과 같은 것인지 혹은 그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서 작위적으로 선택된 것인지를 판별할 방법은 없다.¹⁵⁾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의 그러한 ‘비연속적’인 사유구조가 그의 언론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지적할 수 있다.

“한국 정치는 왜 그렇게 과거에 매달리는 것일까. 왜 과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가. (방점:필자) 혹시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어렵고 불투명한 현재나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따질 수 있는 과거를 즐기고 있는 건 아닐까.”(구로다 가쓰히로, 「옛 독재와 지금 독재, 어느 쪽이 중요한가」 『주간조선』제1819호, 62쪽)

윗 글을 보면, 구로다가 생각하는 역사는 과거 보다는 현재 혹은 미래에 방점이 찍혀진 역사이며, 바람직한 정치도 그와 같은 역사 인식에 근거한 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인이 과거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 구로다는 자신의 역사인식을 일본인의 일반적인 경향과 등치시키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일본은 없다』의 저자 전여옥씨와의 대담에서 전씨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구로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거를 따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결과나 나온 것인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도 소용없는 것이죠. 과거를 계속 따져서 무슨 소용이나 하는 생각이 일본 사람들 사이에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요, 만약 교훈을 삼아야겠다, 경계를 해야겠다 한다면 앞으로의 얘기니까 앞으로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남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소용없는 것이죠. 과거는 과거니까 미래를 보자 하는 것이 일본식 사고예요.”(구로다/전여옥, 1995)

“한국인의 대일 거부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일본에 지배당했다는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반발이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비정상적인 대응은 전부 과거라는 이유로 정당화해왔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한국이 ‘과거탈피’를 하지 않는 한, 정상화 될 수 없다.”(구로다 가쓰히로, 『일본대중문화의 금지와 개방에 대해』 『일본학보』 제5호, 21쪽)

이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절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아래에서, 한국 사회의 친일청산을 위한 노력도 역사문제로서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구조의 문제로 ‘오해’된다.¹⁶⁾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연설의 반을 과거사 문제에 집착했다. 21세기 신세대 대통령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었다. 더욱이 친일파 문제를 거론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3대가 가난하고, 친일했던 사람은 3대가 똥똥거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개인보다 가문, 핏줄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닌가. 열린우리당의 신기남 의장 문제도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은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의 과거가 정치 생명까지 좌우한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구로다 가쓰히로, 『옛 독재와 지금 독재, 어느 쪽이 중요한가』 『주간조선』 제1819호, 62쪽)

■ 정치와 타부문의 분리

역사적 시간의 분절성과 더불어 구로다의 사유구조의 비연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은 정치와 타부문을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다. 이 경향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 정치와 일상의 분리, 정치와 학문의 분리라는 형태로 관찰된다.

① 정치와 경제의 분리

한국의 2007년 대선 결과에 대한 구로다의 해석은 ‘정치보다는 경제’라는 말로 압축된다. 한국이 고도로 정치지향적인 사회라는 점은 정치학에서나 사회학에서 흔히 지적되는 바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일본 사회는 경제중심의 사회로 꼽힌다. 구로다는 한일 양 사회의 이 대조적 성향을 의식해서인지 한국인을 ‘정치 동물’이라 본다고 하였고, 지난 대선의 결과는 놀랍게도 한국인이 경제를 선

16) 같은 맥락에서 구로다는 친일청산운동의 정치적 목적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친일파 관련법 제정은 ‘친일파의 딸’ 박근혜를 죽이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구로다, 2007).

택한 결과라 지적한다. 아래의 문면에서는 정치와 경제를 상호배제적인 영역 혹은 양자택일적인 선택지로 보는 듯한 인식이 드러난다.

“도덕성이란 정치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란 기대감에서 이명박씨를 선택한 것은, 한국 사회에 ‘정치보다 경제’라는 새로운 발상이 생긴 것이다. 내가 ‘정치 동물’이라고 생각해 온 한국 사람들에게 드디어 ‘경제 마인드’가 나타난 것이다.”(구로다 가쓰히로, 「촛불시위는 한국 정치사를 장식해 온 정치 불신의 산물」 『월간조선』 2008년 7월호, 197쪽)

이렇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보려는 구로다에게, 2008년의 수입산 소고기 반대 데모는 어렵사리 ‘경제마인드’를 가지게 된 한국인들이 또다시 ‘정치마인드’로 되돌아가버린 사건으로 기록된다. 그는 어디까지나 그 본질이 경제문제인 소고기 수입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현상을 불가사의하다고 여기며 그 원인을 한국사회 특유의 뿌리깊은 정치지향성 때문으로 이해하려 한다.

“...텔레비전이 과장된 광우병 정보로 이명박 비난 캠페인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영향을 받고 거리에 나온 것이다...이것이 대선 때 그 한국 사람들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렇게 합리적이고 냉철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사람이 돼 버렸다. 그때와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쇠고기 수입 문제는 원래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한 경제 문제다.(방점;필자) 쇠고기 문제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양보한 것도 전체적인 대미(對美) 경제 무역 교역과 연관된 결과다. 물론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는 기술적으로 엄격히 따져야 하지만, 문제의 기본은 경제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으로 정치 문제화되고, 촛불 시위는 이명박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다. ‘경제 마인드’는 사라지고 완전히 ‘정치 마인드’로 돌아간 것 같다.(방점;필자)”(구로다 가쓰히로, 「촛불시위는 한국 정치사를 장식해 온 정치 불신의 산물」 『월간조선』 2008년 7월호, 196-198쪽)

②정치와 일상의 분리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시각에서는, 경제

문제에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참가하거나 논의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된다. 소고기 수입 반대 데모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여라는 현상은 구로다의 인식의 틀 속에서는 매우 ‘신기한’ 사태인 것이다. 정치와 일상이 하나가 되는 한국 시민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동원하는 이론은, 영똥하게도 일본사회의 집단주의적 성향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동일성 지향’이라는 사회심리학적 설명이다.

“일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은 이번의 촛불데모에 월드컵 길거리 군중 응원과 마찬가지로 놀랐고, 다 ‘왜?’라고 묻는다. (방점;필자) 이슈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그 집단적인 현상에 대해서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의 감성이나 행동 양식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한국 사람에게는 ‘똑같이 하고 싶다’는 동일성 지향이라는 마음이 강한 것 같다.(방점;필자) 바람이 불면 다른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 다같이 신나게 놀고 있을 때, 동참 안하면 ‘왕따’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목소리도 못 내게 된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입을 다물고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가만히 기다린다.”(구로다 가쓰히로, 『촛불시위는 한국 정치사를 장식해 온 정치 불신의 산물』 『월간조선』 2008년 7월호, 199쪽)

정치와 일상은 분리되어야 마땅하다는 구로다의 생각은 아래의 글에서 보다 명확히 표명된다. 일반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오지 않아도 정치가 잘 기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지적은 일견 타당하지만, 제도 정치에 대한 과도한 신뢰에 바탕한 편견일 수도 있다. 정치와 일상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을 민주주의라 볼 것이냐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내포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구로다의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은 이미 답이 준비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즉 정치와 일상의 구분을 당연시하는 사유구조의 비연속성이 그것이다.

“한국 사회,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라는 것은 조용한 제도 정치에 대한 신뢰와 기대다. 군중이 길거리에 안나와도 정치가 잘 기능하고, 정치와 나라의 방향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변화다. 전통적인 길거리 민주주의가 아

나라 조용한 실내 정치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고 새로운 모습인 것이다. (방점;필자)”(구로다 가쓰히로, 「촛불시위는 한국 정치사를 장식해 온 정치 불신의 산물」 『월간조선』 2008년 7월호, 201쪽)

그와 같은 인식 아래에서, 구로다는 한일관계에 관한 취재에서도 일반인의 일상생활 차원에서 정치와는 무관한 기사거리를 찾고 싶어한다. 또 일제시대를 ‘정치적 암흑기’로만 규정지으려는 한국인 일반의 역사인식과는 달리, 일제시대의 일상속으로 들어가보면 ‘미담’도 많았을 것이니 그것을 찾아내어 기사화하고 싶다는 소망도 표명한다.

“한일 쌍방의 마스크에게 필요한 것은 미담이다. 일본과 한국 혹은 일본인과 한국인이 사이 좋게 지냈던 이야기-미담을 많이 발굴하고 싶다. 최근, 도쿄에서 일어난 ‘이수현 군 사건’이 그 전형인데, 이른바 일제시대를 포함한 과거에도 한일 간에는 미담이 많았을 것이다. 즉 과거사에 대해서도 ‘억압과 저항’만이 아닌 다양한 사실(정보)을 발굴하고 싶다.”(구로다 가쓰히로, 「한국은 금후 일본 마스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 개방과 다양화의 시대에 -」 『일본문화연구』 제4집, 30쪽)

③ 정치와 학문의 분리

이렇게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것은 일상만이 아니다. 구로다는 정치가 역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정치와 학문도 상호 분리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본다. ‘역사를 정치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와 현재를 분리시키려는 사유구조와 일맥상통한다.

“친일과 문제에 열성적인 사람들은 민주화투사 출신이 많은데, 가문이나 혈통을 따지는 것이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과거사 문제를 학자나 연구자가 아니라 정치 차원에서 다룬다는 것은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방점;필자) 한국에서는 현대사를 포함해서 역사가 정치적으로 왜곡될 때가 많다. 나는 이 땅에 오래 살면서 많이 목격해왔다. 이제는 올바른 역사를 위해서 역사를 정치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방점;필자)”(구로다 가쓰히로, 「옛 독재와 지금 독재, 어느 쪽이 중요한가」 『주간조선』 제1819호, 62쪽)

■사실과 의견(감정)의 분리

학문과 정치를 엄밀히 구분해야한다는 발상은 사실과 의견(감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발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래의 글은 1995년 김영삼 대통령 재임 당시, 소위 문민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정책이 보여준 역사인식과 현실인식에 대한 구로다의 논평이다. 그는 한국인이 과거의 실패한 역사를 ‘직시하지 않으려는 것’은 그와 관련한 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고 추정한다. 즉 사실은 사실이고 그 사실에 대한 감정은 별개의 문제인데, 한국인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한다는 지적이다.

“광복 50주년에 즈음하여, 한국에서 미국의 역할에 관한 어떤 언급이나 행사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단적으로 말해서,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미국에 대한 감사의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없었다. 감사는커녕,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다.…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 왜곡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인은 해방-광복이 자신들의 손이 아니라, 미국(연합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싫은지도 모른다…특히 해방 후 한국의 역사교육이 민족적 자부심이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잘 했다 사관(史觀)’으로 통일되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에 대한 진실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방점;필자)”(구로다 가쓰히로, 「주한미군:평양과 함께 가는 서울의 반미감정」 『한국논단』1997년 10월호, 90-91쪽)

그렇게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려 하고 ‘성공한 역사’만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은 ‘공허한 자존망대’라 비판한다. 역사 자체가 ‘해석’이라는 입장에서는 수궁하기 어려운 지적이지만, 구로다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작위성’을 부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역사라고 주장한다.

“8.15경축사로 보는 한, ‘역사 바로 세우기’를 과시한 문민정권보다는 ‘공허한 자존망대’를 경고한 군사정권 쪽이 사실에 입각한, 훨씬 더 투철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는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정직하면 되는 것이다. (방점;필자) 그래야 교훈이 되어 후세에 살아 있게 되는 것이다.”(구로다 가쓰히로, 「주한미군:평양과 함께 가는 서울의 반미감정」

『한국논단』1997년 10월호, 92쪽)

이와 같은 인식은 한국언론의 ‘작위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특히, 한국언론은 미국이라든가 일본 등의 대외관계에서 자기주장을 할 때, 결코 상대방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소개하지 않는다. 항상 자기 중심적이며, 상대의 주장은 틀렸다는 전제에서만 소개한다. 따라서 상대의 주장이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독자는 일방적인 판단을 강요당한다.”(구로다 가쓰히로, 『주한미군:평양과 함께 가는 서울의 반미감정』 『한국논단』1997년 10월호, 96쪽)

같은 맥락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이라는 상황도 북한의 위협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 대응에 필요한 ‘사실’일 뿐이며, 피해의식이나 민족감정에 기반한 ‘의견’이 들어설 여지는 없다고 주장한다.¹⁷⁾

“한국의 경우, ‘북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일본의 경우보다도 훨씬 중요한 존재다. …그러나 그것을 민족감정이라고 하는 감정만으로 대치하는 것은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觸角殺牛)’ 결과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방점; 필자) 일본에서는 현재, 주일미군의 경비 대부분을 일본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일본이 스스로의 안보상의 필요 때문에 미군을 ‘용병’으로서 주둔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곳에는 피해의식과 같은 민족 감정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방점; 필자)(구로다 가쓰히로, 『주한미군:평양과 함께 가는 서울의 반미감정』 『한국논단』1997년 10월호, 97쪽)

■저널리즘(의견)과 학문(진리)의 분리

구로다의 한국 언론에 대한 논평속에는 하나의 사실 혹은 의견으로서의 언론 보도와 진실 혹은 진리는 별개라는 인식도 강하게 드러난다. 여기서는 이것을 저널리즘과 학문의 분리라고 명명해 보았다. 그는 특히 한국 언론의 일본 보도가 사안을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 비판적인 논조로 흐르는 경향성을 지적하면서,

17) 구로다는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에서도, “반외세(反外勢)가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민족적 정서이지만, 인민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반외세’가 진정으로 민족적인 것일까”라고 반문한다(구로다, 2004-1).

그 ‘작위성’을 규탄한다.¹⁸⁾

“한국 마스크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국 사회의 일본에 대한 깊은 관심이 반영되어 일본에 관한 정보량은 많다. 그러나 한국 마스크의 ‘언론본질’ 탓일까, 일본 마스크에 비해 정치나 외교문제를 중심으로 비판, 비난의 보도가 두드러진다. 이것이 ‘반일논조’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지만, 한국 마스크는 독자 혹은 시청자에 대한 계몽적, 교육적인 자세가 강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논조(즉 반일 논조)에 의해 독자나 시청자를 계몽, 교육하려고 한다.(방점; 필자)”(구로다 가쓰히로, 「한국은 금후 일본 마스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 개방과 다양화의 시대에 -」 『일본문화연구』제4집, 25쪽)

언론보도의 그와 같은 ‘작위성’은 주관적이며 감정적인 선동으로 호를 위협이 커서, 독자와 시청자에게 사안에 대한 공정한 판단자료를 전달한다는 언론의 사명에 위배된다는 것이다.¹⁹⁾

“한국 마스크의 일본 보도에 있어서 ‘반일 3종의 신기’라고도 해야 할 세 가지의 테마가 있다. 그것은 ‘독도’ ‘위안부’ ‘역사인식’인데, 이들에 관한 보도는 대부분의 경우, 사실보다 감정이 앞서, 선동적이 된다. 한국 마스크의 일본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망언’이라는 말이 이를 상징하고 있다... ‘망언’이라는 것은 소위 답안지라는 것으로, 논의나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천적 부정이라는 의미이다. (방점; 필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 분석할 필요는 없고, 그저 오로지 비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선동을 선호하는 정치가나 사회운동가가 문제를 ‘망언’

18) 구로다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평화유지군활동(PKO)에 대한 한국언론의 보도태도를 꼽는다. 한국 언론은 PKO의 실태를 소개하기에 앞서 일본 군사력의 소개에 역점을 두는 등 사안을 일본의 군국주의화로 틀지워간다는 것이다, 즉 어떤 형태이건 자위대가 해외에 파견되게 되었다는 데에만 주목하며, 현재의 자위대 해외파견이 어째서 군사대국화나 군국주의에 연결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실태적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구로다, 1992). 최근의 사례로는 2005년의 한일갈등이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언론의 균형을 잃은 보도 때문이라는 지적을 들 수 있다(「구로다 지국장 “한일 갈등은 한국언론 보도 때문”」 <조선일보> 2005년 4월 22일자 기사).

19) 이와 같은 비판은 다른 외국언론인에게도 나타난다. 마이클 브린 워싱턴 타임스 서울 특파원은 한국 언론이 “객관적 보도를 제공해오지 못했으며, 솔직하고 개방된 여론의 광장 구실도 못해왔다”고 지적한다(마이클 브린, 1991).

으로서 비난하고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정보로서 사실을 전하고, 논의나 의견을 냉정하게 독자나 시청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언론기관(매스컴)이, 처음부터 문제를 ‘답안지’적으로 ‘망언’ 취급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감정적이다. (방점;필자)”(구로다 가쓰히로, 「한국은 금후 일본 매스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 개방과 다양화의 시대에 -」 『일본문화연구』제4집, 27쪽)

특히 이와 같은 언론보도의 문제성은 역사인식과 관련한 사안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널리즘의 기능은 문제를 알리고 그것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그쳐야 함에도, 자신들이 ‘진리’라 믿는 것, 즉 학문의 세계에서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답안’을 독자나 시청자에게 ‘강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⁰⁾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한일뿐만 아니라 관계국간에 의견의 차이는 항상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 매스컴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의견의 대립을 ‘역사왜곡’으로서 일제히 전한다. ‘왜곡’이라는 것은 이미 거기에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는, 주관적인 주장이다. (방점;필자) …이 역사인식문제를 비롯한 우리 일본 매스컴의 한국 보도에 있어서는, 한국측이 일본의 입장과 다른 의견이나 견해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것을 ‘망언’이라든가 ‘왜곡’이라고 표현하는 일은 전혀 없다. 그것은 참고 혹은 검토의 대상이 되는 다른 견해, 즉 ‘이견’이므로, 처음부터 ‘답안지’적으로 ‘망언’이라든가 ‘왜곡’이라는 판단을 독자에게 강요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구로다 가쓰히로, 「한국은 금후 일본 매스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 개방과 다양화의 시대에 -」 『일본문화연구』제4집, 28쪽)

■일과 인간의 분리

구로다는 위와 같이 한국 언론의 경향성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관심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기자로서는 한국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한 사람의

20) 구로다는 한일관계가 반세기 이상 갈등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직접적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국 언론의 과잉반응이라 지적한다(구로다, 1999).

외국인으로서 ‘타자’인 한국, 한국인을 이해하려는 인간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책 『한국인의 발상』을 설명하며; 필자) 머리말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한국 사람은 동양의 이탈리아 사람이다’라는 하나의 가설을 만들자. 가족을 중시하고, 음식이 맵고 짜고, 노래 잘하고, 지정학적으로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에 살고, 기후도 비슷하고 기타 등등’. 내가 왜 이런 가설을 세웠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려고요. 한국인은 까다롭고, 화 잘 내고, 어둡고… 이런 이미지를 바꾸려고 그랬지요.”(오효진, 「펜을 든 사무라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구로다 가쓰히로(2)」 『월간조선(인터넷)』, 2006년 5월 4일)

앞서 우리는 구로다를 현대판 일본 제국주의자처럼 여기는 한국인의 글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래의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로다 자신은 한일 양국을 대등한 관계로 보고 있음을 강조한다. 일본 제국주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서는 아래의 글도 ‘제국주의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면 그대로 한일관계를 ‘프랑스와 영국’의 관계에 비유한다면, 구로다의 비전이 옛 일본 제국주의의 연장선에 입각해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면도 있다.

“제가 일본에서 강의할 때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김옥균 선생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이 동양의 영국이 된다면 우리는 동양의 프랑스가 되자.’ 100년전에 이런 좋은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우리는 지난 100년 간 그걸 실현 못했어요. 지금부터 21세기 100년을 생각할 때, 한국과 일본이 그런 동양의 프랑스와 영국이 될지 모르겠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방점; 필자) 그 시발이 월드컵이 아닌가...”(오효진, 「펜을 든 사무라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구로다 가쓰히로(2)」 『월간조선(인터넷)』, 2006년 5월 4일)

<산케이>의 특파원으로서의 구로다의 언론활동과 한 사람의 일본인 혹은 개인으로서의 구로다의 생각과 활동을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보다 이성적인 관찰과 비판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각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로다의 글과 발언들에 깔려있는 사유구조는

한국인들의 구로다론에서 보이는 사유구조의 ‘연속성’과 거의 정반대에 가까운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특징은 한마디로 ‘비연속성’, ‘분리성’에 있다. 이 비연속적 사유구조야말로, 구로다가 한국에 관한 사상(事象)을 비평할 때마다 한국인 독자들로 하여금 납득하기 어렵고 때로는 불쾌한 느낌마저 들게 만드는 보다 본질적인 원인이 아닐까. 양자의 상반된 사유구조가 만나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는 저널리즘의 영역에서도 한일간 ‘커뮤니케이션의 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6. 결론

본 논문은 ‘지한파’ 일본 언론인 구로다의 언론활동이 왜 정작 한국인들에게는 평판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에 대해, 세 가지 차원에서 그 답을 모색해보았다. 첫째는 구로다의 언론이 즐겨 구사하는 ‘아이러니/히니쿠’의 냉소성과 탈신화적 의미작용, 둘째는 정확성과 객관성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대한 교묘한 일탈 및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셋째는 비연속적 사유구조가 그것이다. 이 중 첫째와 둘째는 표면적으로 구로다 저널리즘의 스타일을 형성하는 요소라 한다면, 셋째는 그것을 수면 아래에서 떠받치는 토대에 비유할 만하다.

특히 본 논문은 구로다의 언론과 그에 대한 한국인의 비판론에서 보이는 사유구조상의 특징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그 둘의 상위가 한일간 커뮤니케이션의 갭을 낳는 근본 원인이 아닐까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잠정적 결론으로도 출된 양국간 사유구조의 차이라는 문제는 한일 양국 언론의 비교 연구를 통해 실증적 검토가 계속 필요한 부분이다. 또 다른 지한파 일본 언론인의 언론활동을 사례로 비교 분석을 확대해감으로써 구로다 저널리즘의 성격을 객관화해가는 작업도 금후의 과제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훈(2000) 「구로다 가스히로의 글을 읽고」 『인물과 사상』제24호, 인물과사상사, pp.131-135
- 구로다 가스히로(2008) 「춧불시위는 한국 정치사를 장식해 온 정치 불신의 산물」 『월간조선』제340호, 조선일보사, pp.196-201
- _____ (2007) 「남북 격차는 왜 생겼는가: 친일과 문제의 해법을 찾아서」 『한국논단』제214호, 한국논단, pp.34-43
- _____ (2004) 「외국 기자들이 보는 새해 한국의 희망과 전망 : 친미와 친일이 가장 민족적이다」 『한국논단』제171호, 한국논단, pp.54-61
- _____ (2004) 「일본특파원들이 본 ‘과거사 정치’: 옛 독재와 지금 독재, 어느 쪽이 중요한가」 『주간조선』제1819호, 조선일보사, p.62
- _____ (2003) 「[번역기사] 외신이 본 한국 - 통일과 민주화의 불가사의」 『북한』제383호, 북한연구소, pp.110-112
- _____ (2001) 「김대중정부의 교묘한 언론탄압을 말한다 : 북한 비판하는 조선일보 영향력 약화가 목표」 『한국논단』제142호, 한국논단, pp.44-49
- _____ (2001) 「[테마연구] 한국은 금후 일본 마스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개방과 다문화의 시대에-」 『일본문화연구』제4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25-30
- _____ (2001) 「시론 : 부산, 대담한 발상 전환을」 <국제신문> 2001년 1월 4일자 기사
- _____ (1999) 「수상:마인드 컨트롤」 『한국논단』제115호, 한국논단, pp.178-181
- _____ (1998) 「일본대중문화의 금지와 개방」 『일본학보』제5호, 경성대학교일본문화연구소, pp.16-28
- _____ (1997) 「주한미군:평양과 함께 가는 서울의 반미감정」 『한국논단』제98호, 한국논단, pp.90-97
- _____ /전여옥(1995) 「격돌:‘일본은 없다’는 전여옥과 ‘좋은 한국인’ : <추한 한국인>은 일본의 과거가 뭐그리 중요하나?」 『한국논단』제70호, 한국논단, pp.136-153
- _____ (1994) 손풍삼 역 『좋은 한국인 나쁜 한국인』, 고려원, pp.255-318
- _____ (1992) 「공보다 사가 중요시되는 사회-경제를 통해 본 한국인-」 『통일한국』제99호, 평화문제연구소, pp.31-35
- _____ (1992) 「특별기획 (2) : PKO, 한일 시각차 - 일본의 ‘군국주의화’ 우려는 무지에서 온다」 『한국논단』제35호, 한국논단, pp.101-106
- _____ (1991) 「신뢰도에 문제점 있는 감상적 한국언론」 『한국논단』제28호, 한국논단, pp.66-71
- _____ (1987) 신동백 역 『한국인은 한국인이다』, 정음사, pp.204-236

- _____ (1984) 신동백 역 『한국인 당신은 누구인가 제2권』, 모음사, pp.29-38
- _____ (1983) 조양욱 역 『한국인 당신은 누구인가』, 모음사, pp.70-82
- 김동현(2009) 「극우 구로다의 ‘깁죽’」 <뉴스엔뉴스> 2009년 1월 29일자 기사
- 김영인/이승영 「구로다 기자가 한국모습 제대로 알려 ‘상받았다?’」 <한겨레신문>2005년 4월 22일자 기사
- ‘나카마’ japan.web-bi.net/home(검색일 2005년 1월 31일)
- 다카사키 쇼오지(2001) 「남북 화해와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 남북화해와 일조(日朝)화해에 반대하는 인사들」 『통일시론』통권9호, 청명문화재단, pp.80-91
- ‘들풀’ 「구로다 가쓰히로는 누구인가」deulpul.egloos.com/936895(검색일 2005년 3월 17일)
- 롤랑 바르트(1997)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역 『현대의 신화』, 東文選, pp.261-339
- 루스 베네딕트(2008) 박규대 역 『국화와 칼 : 일본문화의 유형』, 문예, pp.265-306
- 마이클 브린(1991) 「한국의 언론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한국논단』제28호, 한국논단, pp.72-77
- 마치다 미쓰구(1997) 「“어지간히 과장된 기사로구나”-일본인이 본 한국언론의 일본 보도」 『신문과 방송』 1997년2월호, 한국언론재단, pp.29-31
- 박철현(2004) 「‘일본우경화의 주범은 언론 - 역사의식과 경험의 차이’가 선동적 언론을 만날 때」 『인물과 사상』제76호, 인물과사상사, pp. 40-56
- 부산언론운동시면연합 「‘왜 구로다 가쓰히로’인가!」 siminnet.or.kr(검색일 2001년 4월 26일)
- 손석춘(2004) 「저널리즘:기고 - 한국 언론운동과 일본언론의 과제」 『신문과방송』제405호, 한국언론재단, pp.70-74
- 안호진(2001)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의 구로다 기자를 아는가」 『인물과 사상』제35호, 인물과사상사, pp.90-94
- 오진환(1993)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언론에 관한 연구」 『일본학보』제30집, 한국일본학회, pp.79-93
- 오호진(2001) 「펜을 든 사무라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구로다 가쓰히로」 『월간조선(인터넷)』2001년 10월호(<http://monthly.chosun.com/>)
- 이신우(2005) 「오피니언 ; 구로다 기자에게」 <문화일보> 2005년 3월 25일자 기사
- 이영환(2005) 「‘경향신문-MBC, 이제 <산케이>와 결별해야 -전두환 정권 때 제휴 체결, “구로다에게 장소제공, 말도 안돼”」 <프레시안> 2005년 4월 11일자 기사
- 이정훈(2001) 「심층연구 일본 우익의 선봉 산케이신문-산케이 한국보도 親韓인가 反韓인가」 『신동아(인터넷)』통권501호, 동아일보사
- 조규철(2003)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한일 커뮤니케이션의 겹」 『일본학보』Vol.57 No.2, 한국일본학회, pp.685-696
- 최재석(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제3판)』, 현음사, pp.46-56

‘해우소’ 「구로다 가쓰히로의 망언에 침묵하는 우리 언론」 maggot.prhouse.net(검색일 2008년 5월 1일)

‘홀리간유행가’ 「구로다씨 당신은 진정 기자입니까?」 world.hani.co.kr/board(검색일 2005년 4월 23일)

黒田勝弘(2006) 『“日本離れ”できない韓国』、文芸春秋、pp.24-50

_____/市川速水(2006) 『朝日vs.産経ソウル発：どうするどうなる朝鮮半島』、朝日新聞社、pp.85-130

_____(1999) 『韓国人の歴史観』、文芸春秋、pp.55-98

_____(1988) 『新韓国人の発想：「文」社会から「商」社会へ』、徳間書店、pp.83-85

杉山光信(1989) 『学問とジャーナリズムの間』、みすず書房、pp.1-222

_____(1989) 『現代社会学の名著』、中公新書、pp.223-236

blog.daum.net/icebluesky/1725239

http://sankei.jp.msn.com/world/korea

neo.urimodu.com/bbs

❖ 투고일 : 2009. 6. 30

❖ 심사일 : 2009. 7. 16

❖ 심사완료일 : 2009. 7. 28